

제36회 만해백일장 한채령 만해대상 수상

대불청, 전국만해백일장 개최...1500여명 응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는 3월 1일 동국대에서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제36회 전국만해백일장에서 한채령(서울 진명여고 1학년) 학생이 만해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는 3월 1일 동국대에서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만해백일장에는 전국 초·중·고·청·소년·일반인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지구' '편의점' '아이디' '만세소리' 등 시제를 시·시조·산문분야로 나누어 실력을 뽐냈다. 만해대상을 수상한 한채령 학생은 '유

행에 뒤처진 사람'을 제목으로 산문을 써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으며 이현주(청주중앙여고 1학년) 학생은 '지구'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만해상(국회의장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조혜주(한예중 1학년)씨와 송은서(세종중 1학년)학생이 장원을 수상하는 등 총 130명의 응시자가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나는 기자

제20기 포교사고시 실시...941명 응시

3월 13일 결과 조계종·포교사단 홈페이지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8일 서울 동국대와 강릉여고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제20기 일반포교사고시'를 실시했다.



포교원은 2월 28일 서울 동국대 등 8개 고사장에서 '제20기 일반포교사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고시는 102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서류전형 탈락자와 결시인원을 제외하고 총 941명이 응시했다.

필기고시 결과는 3월 13일 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4월부터 7월까지 2차 포교활동평가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품수

식은 9월 중 일요일에 봉행될 예정이다. 이나는 기자

제1회 명상지도자 지도사 특별과정 개설

불교상담개발원, 삼보사서 3월 25일부터 진행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제1회 명상지도자·지도사 특별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중단이 인가한 최초 명상지도과정인 이번 과정은 오는 3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진행된다.

원 재학생 이상, 전문포교사, 일반포교사(졸업예정자), 명상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재학생 이상, 본원이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마가 스님, 월호 스님, 김희교 교수, 정준영 교수, 용타 스님, 인경 스님 등이 강사로 △명상의 이해와 원리 △위빠싸나·사마타 이론과 실습 △묵조선 △뇌와 명상 △자아 명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스님 이상, 불교상담대학

원 재학생 이상, 전문포교사, 일반포교사(졸업예정자), 명상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재학생 이상, 본원이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과정을 대한불교조계종 중단자격증인 명상지도사 2급(스님), 명상지도사 2급(재가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표상으로 우뚝 선 명상지도자의 실질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7-7378 이나는 기자

筆寫 流行... 집중력과 경전 이해력 높여

(필사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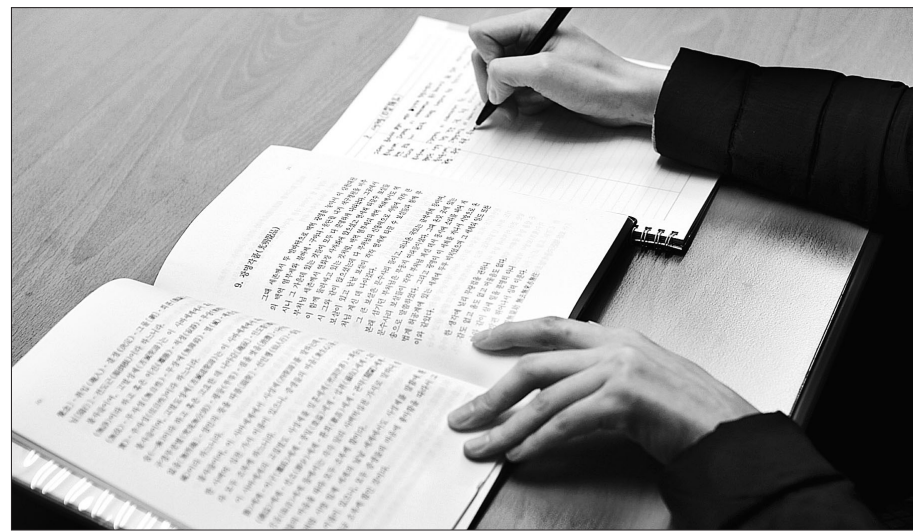
작가의 작품을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것을 필사(筆寫)라고 한다. 과거에는 문학도가 문장력을 키우기 위해 주로 했던 필사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순원(33·여) 씨는 매일 꾸준히 20~30분씩 소설 <무진기행>을 필사하고 있다. 예쁜 표지의 노트 위에 필기감이 좋은 펜으로 문장을 음미하며 또 박도박 글을 써 내려간다. 정 씨는 소설뿐 아니라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 서적을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필사했다. 그렇게 해서 쌓인 노트는 10권이 넘는다.

정 씨는 "작품을 쓰면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보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력을 길러 줘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하던 필사는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로 사경(寫經)이다. 사경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토록 해 염불·절·참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꼽힌다.

경전을 옮겨 적는다는 의미의 사경은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경전을 베껴 책을 만들어 유포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사경의 시초는 폐엽(貝葉)에 벼여를 기록한 폐엽불전(貝葉佛典)이다. 기원전 후 인도 서북부에 일기 시작한 대승불교 운동은 재가 신도의 신앙과 보살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는 불경유포를 위해 사경 공덕을 강조했다. "사경의 공덕이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사경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토록 해 염불·절·참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꼽힌다.

법화경사, 대관음사 등 사경 대표적 경전뿐 아니라 오도송, 선어록 도움 불보살님 가피와 공덕 높다고 알려져

수승하다(도행반야경 탐품)."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사경 수지 해설하면 대원을 성취한다(법화경 법사공덕품)." "무수한 세월 동안 물질로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을 사경, 수지 독송해 다른 이를 위해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

이처럼 경을 외우고 이해하며 독송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은 여러 경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사경을 하면 무엇보다 경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경전 자체가 부처님의 참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음(原音)을 한자 한 획 옮겨 쓰는 순간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으로 일체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

불교계에서는 사경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30만 명에 이르는 전 동문신도들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3대 경전을 사경하고 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법당에 모여 사경명상 수행법회를 진행한다. 불자들은 경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사경을 통해 일체 번뇌와 망상을 사라지게 하고 심신을 청정하게 한다.

법화경사(회주 도림) 신도들은 꾸준히 법화경을 사경해 1년에 2번 천안 구룡사에서 법화경사경 봉안식을 거행하고 있다.

도림 스님은 "법화경은 모든 가정을 부처님 상주설법하시는 청정도량으로 가꾸고 사경하는 사람들을 성불의 기운으로 깨어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현사, 능인선원, 불교문화센터, 삼광사, 제주 불사리탑, 전북불교회관, 부루나포교원, 영남불교대학 등이 사경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매년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증장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본경> <법화경> <수능엄경>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해 정신성, 예술성, 창작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해 시상한다. 이런 사경 수행을 불교 문학작품으로 넓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시인 등 불교적 사상과 내용을 필사하면 불교적 감수성도 기를 수 있어 좋다.

김형중 동국대 부속중학교 교감은 "나옹선사, 서산대사 등 고승대덕들의 오도송 등 좋은 선시들이 많다. 만해 한용운 스님뿐 아니라 조지훈, 고은 시인을 비롯해 오현 스님의 작품을 필사 하면서 불교정신을 배우고 표현력을 기를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 마음등불' 2014년 우수사례 선정 발표

포교원, 2월 27일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워크숍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 가운데 불교계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7일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서울대 인문신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에서 지난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사례 발표를 했다.

'청소년 마음등불'에 참가한 단체는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한마음 과학원, 봉인사, 행복선원 등으로 각 기관 명상센터나 수련원에서 2014년 8~10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 진행한 '명상과 함께 하는 감정조

절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은 지난 해 9월 신홍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중·고등학교 12명과 학부모 12명 대상 프로그램인 △3분 호흡명상 △몸느낌 명상 △명상관람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고슬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사업추진 결과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서로 감정을 개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직면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마음 등불' 외에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진행한 '생명평화의 바람꽃', 원불교에서 진행한 '청소년 마음 공부 심·플이'가 우수사례로 선정 소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중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7일 서울대 인문신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에서 지난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사례 발표를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 진행한 '명상과 함께 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에는 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천주교 '청소년 포레 공동체 운영', 유교 '부자 캠프, 사제 캠프', 원불교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플

이',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민중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및 종교계가 연합해 진행하는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등이 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15학년도 안정불교대학(경전반/범패학과/호적반) 신·편입생 모집 안내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중단 교육불사에 앞장서고자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한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특 전 : 본 대학은 태고종도들의 도제양성과 교육비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청련사에서는 상당부분 학교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교 홈페이지 안정불교대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전반 : 전통강원 과정 4년

학년	학기	1 학기
1 학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치 문(禪 門)
2 학년		서장(書狀), 도서(都序) 선요(禪要), 절요(節要)
3 학년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2. 범패학과 : 교육과정 4년(범음, 범패, 작법)

학년	학기	1 학기	2 학기
		○ 기초과정 ○ 기 초 : 목탁 치는 법 및 요령 사용법 ○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경례, 각단예불 ○ 시 식 : 각종 제사의식 ○ 송경의식 : 화상 및 대장의식	○ 상주권공 ○ 작법과정 ○ 사물 다루는 법
		○ 절도의식 과정 ○ 상단 불공 의식 ○ 중단 용호계 작법	○ 제재비 및 범주, 바라지 ○ 실천행사 의식진행 과정 ○ 시련회 준비
		(영 산 I)	(영 산 II)

3. 호적반 : 2년 과정

학년	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년		태평소의 기초를 이해하고 태평소를 기초부터 배우며 태평소 기초습득과 능계(자진모리, 휘모리)를 마스터한다. ○ 교육과정 ○ 태평소 기초 1~4(4주 교육) ○ 능계 자진모리 1~3(3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천수바라, 막바라와 능계(거거리)를 마스터 한다. ○ 교육과정 ○ 태평소 기초 5~7(7주 교육)
2 학년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열불을 마스터 한다. ○ 교육과정 ○ 열불 1~7(7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대취타를 마스터한다. ○ 교육과정 ○ 대취타 1~7(7주 교육)

4. 모집과정 및 원서교부, 접수

모 집 과 정	경 전 반 (전통강원)	내전반	경전반(강원교육)
	범 패 학 과	내전반	기초과정, 상주권공, 작법, 각배, 영산
원서교부 및 접 수	2015. 2. 16(월) ~ 2015. 3. 18(수) * 수시접수 가능함	본교 교학처 : 031)829-3220 교무담당: 일평범사 010-9180-3354 / 일요스님 010-5114-2033 인터넷 교부접수 ht:tp://www.bluelotus.co.kr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http://www.bluelotus.co.kr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릉면 권율로 169
TEL: (031)829-3220 FAX: (031)836-1081
교무담당: 일평범사 010-9180-3354
일요스님 010-5114-2033
* 통학버스운행 : 매주 수·목요일 각과 수업시간에 맞춰서 운행. 구과반역 2번 출구에서 승차 가능. 입학시 학교측에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 제출요.

5. 입학안내

입 학 자 격	중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한 (단, 승학과 편입생은 타 강원도에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본교 강주 스님께서 인정 하는 사람만 가능함. 범패학과 편입생은 시험결과에 따라 편 입학 자격이 부여 됨.)
입 학 식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련사 대적광전 대법당
개 강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전반
수 업 시 간	경 전 반 - 안정불교대학 강사 효득(일우)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효범(일해)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범패학과 - 강주 상진스님 / 강사 일평스님 (안정불교대학 강주) (육전범음대학 3년 과정 졸업)
	호 적 반 - 위제영(중요부령문화재 46호, 괴리정약 및 대취타 이수자, 원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임단원)
	① 초 심 반 : 수요일 오전 9시-오전 12시 ② 치 문 반 : ④ 사 교 반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6시
호 적 반	① 기초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7시 (단, 수업특성상 수업정원을 초과순 10명으로 제한 함)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 고 : 1. 경전반이나 범패학과는 각학년 공동과목이며 승학과 및 범패학과는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2. 호적반은 특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청강 할 수 없음.)

6. 입학서류 및 접수방법

공 통	제 출 서 류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릉면 권율로 169 청련사내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사본 1부(해당자) 5.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6. 반명함판 사진 5매 (등득수제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